

일주문



천수천안, 환경지킴이 발족
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 대표 도명 스님은 4월 8일 경기 창릉천에서 '고양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연꽃 뿌리 무료 보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4월 11일 묘사재 주변에 위치한 연밭에 있는 홍련(紅蓮)과 백련(白蓮)을 제주소, 경기 기림사 신도들에게 무료로 보시했다.



6대 군위사암연합회장에
군위 인각사 주지 성인 스님은 4월 12일 열린 군위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군위사암연합회장으로 추대됐다.



약사여래후불탱화 봉안
대구 관음사 주지 벽파 스님은 4월 13일 신도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 8m 세로 5m 크기의 약사여래후불탱화를 봉안, 점안법회를 가졌다.



미안마 3개 대학에 PC 기증
동국대학교 홍기삼 총장은 4월 12일 총장실에서 미안마 양공순가대학, 만달레이승가대학, 국제테라바다포교사대학 등 3개 대학에 보낼 PC 기증식을 가졌다.



'대불련의 사회적 역할' 주제 특강
(사)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4월 17일 경기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수련대회에서 '대불련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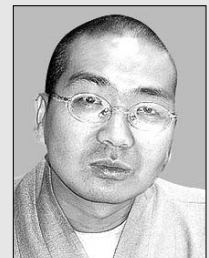


경주 남산 불교유적 답사
부산울산경남 불교연인회 강호일 회장은 4월 25일 오전 9시 부산불교회관 앞에서 출발, 경주 남산 불교유적답사를 떠난다. 011-9308-0373

美 LA 웨스트대서 강의

성원 스님 7월부터

서울 구룡사 성원 스님(사진)이 미국 대학에서 한국불교와 일본 불교 전공 겸임교수로 재용되 화제다.



성원 스님은 7월 1일 시작되는 여름학기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대학(University of the West)에서 '한국과 일본종교 - 비교종교 세미나'란 이름의 강의를 시작한다. 성원 스님은 89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92년 서울대 철학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해 미국 위스콘신대학 아시아어언문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유진 기자

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한
곰브리치 교수



“옥스퍼드에 불교학 연구센터 세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불교학 연구센터(Oxford Center for Buddhist Studies)를 건립할 생각입니다. 불교학 연구센터를 통해 옥스퍼드 대학의 불교학 전통을 이어나가야겠지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이나 런던 대학의 소아스(SOAS) 불교학 연구센터와 차이점은 불교를 공부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4월 22-23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인도철학회(회장 김선근)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내한한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석학 곰브리치(Richard F. Gombrich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 사신) 교수는 요즘 '옥스퍼드 불교학 연구센터'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쏟고 있다. 올해 9월 곰브리치 교수가 은퇴하면, 옥스퍼드 대학에 불교학을 전공한 교수의 맥이 끊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의 불교학 장서들과 박물관 자료들이 사정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불교학연구센터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곰브리치 교수는 연구센터를 설립한 후, 2005년부터는 초기·대승·티베트 불교와 불교미술·불교사학 등에 5명의 강사를 초빙해 옥스퍼드 대학의 동양학과, 신학과, 평생교육원 등에서 불교학 강의를 주관할 생각이다. 이외에 불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불교 심리학·서양 심리학·

이 없다"라고 단언한다. 곰브리치 교수는 또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교는 '성' 문제에만 집착해 '적대감'을 해결할 수 없지만, 불교는 무상(無常)과 업(karma·業) 사상을 통해 경쟁이 아닌 조화와 상생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곰브리치 교수는 초기불교를 대표하는 석학이다. 1994년 팔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팔리 경전 주석서인 아타카타(atthakatha)번역 사업을 계획하고, 이후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 스님 등 한국인 제자 3명과의 인연으로 한국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다른 초기불교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곰브리치 교수도 팔리 경전 번역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하는 것을 영원한 화두로 삼고 있다.

9월 은퇴, 센터 건립에 전력
내년부터 불교학 강의 주관

현대 심리학을 비교하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22일 '현대의 위기와 인도철학적 대안'을 주제로 열리는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곰브리치 교수. 그는 현대사회의 최대 위기로 경쟁으로 인한 '적대감'과 '성(性)' 문제를 꼽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불교만한 대안

한국의 불교미술(종무원장 송정은)은 최근 4대 성지 보타낙가신을 순례했다. 미륵종종정 연화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송정, 감사원장 영각, 사무총장 보성 스님 등 사부대중 1백50여 명이 보타낙 해수관음원을 참배했다. 조법제 경남지사장

미륵종, 중국 관음성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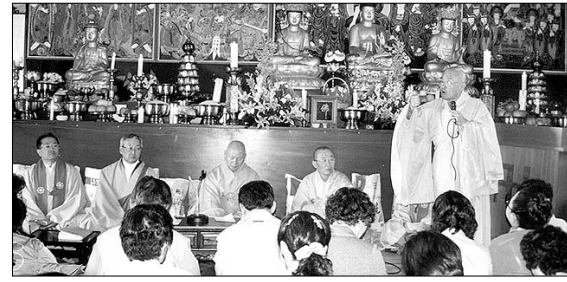
(사)한국불교미술종(종무원장 송정은)은 최근 4대 성지 보타낙가신을 순례했다. 미륵종종정 연화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송정, 감사원장 영각, 사무총장 보성 스님 등 사부대중 1백50여 명이 보타낙 해수관음원을 참배했다. 조법제 경남지사장

적조사, 생전에수재 회향



적조사(주지 자성)는 4월 11일 서울 적조사 대웅전에서 신도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생전에수사왕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자성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살아있는 동안 수승한 복을 짓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미륵사 열반와불 조성 1주년 법회



포천 미륵사(주지 성광)는 지난 4월 11일 세계 최대 단일석상 열반와불 봉안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금강선원장 활안, (재)일불선교종 사정원장 용암 스님 등을 비롯해 포천군내 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태종, 미안마 난민에 PC 전담



천태종 나누며나되기운동본부(총재 은덕)는 4월 14일 대구 대성사에서 미안마 서부군경에 위치한 대승지방 난민촌에 중고컴퓨터 160대를 기증하는 전담식(사진)을 개최했다.

사무총장 무원 스님은 "컴퓨터 보급은 다양한 국적·종교·민족을 뛰어넘는 인도주의의 지원사업으로, 차별 없는 부처님 가르침의 면면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문광부 종무1과장에 강배형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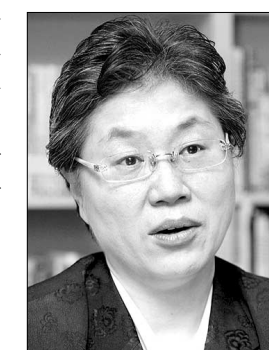
불교업무에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종무1과장에 강배형(사진) 씨가 임명됐다. 강과장은 국립국악원, 공보처 해외공보관 등을 거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경신문과장, 주 인도공화국대사관 1등 서기관, 주 뉴욕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언론서 배운 노하우
포교에 회향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여성불자상 선정
최정희 前 현대불교 편집국장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교언론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회향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정한 '제1회 한국여성불자상'에 수상자로 선정된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사진) 씨는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75년 불교신문 공채기자로 출발해 25년간 불교언론에 몸담았던 최정희 씨는 불교출판의 저변 확대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 영예를 안았다.

또 현대불교신문에 재직하며 '사찰문화재현기행'을 비롯해 '대생용 반가사유상 보내기 운동', '국악 찬불가 해초 공연' 등을 적극 주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방송포교에도 관심을 가진 최 씨는 불교방송에서 '자비의 전화'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조성 모연문
본 암자 내원암은 지리산 도솔봉에 위치하며 대한 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산내 암자로 창건연대가 신라 경덕왕시대 8월 81암자 중 하나였던 내원암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내원암에 거주하기 어렵도록 쇠락소멸 되어 터만 남은 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신승이 복원을 발원하여 현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중입니다.
하오나 본승의 원력이 부족함에 부득이 도솔봉 내원암에 모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 시주님과 법당에서 사용할 법당중 조성 불사 인연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으신 많은 불자들의 동참 인연을 기다립니다.
※ 불구와 가진 및 일체 생활용품 등도 보시를 기다립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정리 지리산 화엄사 산내 도솔봉 내원암 주보방당 지암 합장
연락처 전 화 061-783-0095
휴대폰 017-611-0096
● 온라인 : 우체국 601625-02-021246
국민은행 576-21-0308-915
예금주 : 장훈섭(지암스님)

녹음테이프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논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관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시면 즉시 배송에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3) 384-2303 大邱支部 : (053) 641-2334
龜尾支部 : (054) 465-2642 慶南支部 : 016-274-3170
慶北支部 : (054) 553-5145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4 3·4월호 주요 내용
특집 | 한국 불교의 선택(譯稿),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대 교체가 다시쓰는 한국 선종사, 한국 선불교의 맥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를 다각도로 점검해 본다.
한국 불교의 법맥(法脈)과 선택은 근본부터 다르다
현대계 한국선의 문제점과 과제
지금 왜 논쟁법회인가 - 세대 교체가 한국 선불교가 나아갈 길
교리 - 지혜의 샘
생활인을 위한 경전 읽기
『유마경』(2) 유마힐이란 누구인가
지상중계 | 불교경전강좌
혹배논리를 비판하고 중도를 논한, 용수 보살의 『중론(中論)』
수행 -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재가불자를 위한 눈높이 수행, 수행의 ABC
참선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나
서양인의 참선수행 체험기
승산 스님의 제자 제인 도비즈가 말하는 "나의 스승, 나의 禪 수행"
문화 속으로
마음을 밝혀주는 세계 음악여행 | 티베트 음악
성낙주의 석굴암 건축기행 | 주심의 동 지장 ①
공연리부(뮤지컬 '뫼마미야') 연기법에 의한 자아찾기
성보박물관을 찾아서 | 수덕사 근역성보관(極樂聖寶館)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 불전의 하늘궁전, 단결(단산 생가사 · 안주 화암사)
자연과 사람
절집의 나무들 | 은행나무
내가 만난 불교문화 | 불교 건축학자 김경기
등잔 밑을 밝히는 사람들
- 뮤지컬 연출가 이광열(『오세암』) · 박근형(『나무상화』)
서양 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 로리스 프로그램 개발자, 미켈 카포
불교 정보창고
고전 읽기의 즐거움 | 연암 박지원의 '구공탐명(龜公塔銘)'
한국불교관계는저출생인식(2003, 2004 단행본 · 학원신문)